

“생떼·폭언 등 힘들어”...지자체별 기피부서 ‘골머리’

광주시·구청 선정 격무·기피 업무 보니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철거현장을 담당하는 서구는 ‘공사장 민원 업무’, 전남대와 조선대 병원이 있는 동구는 ‘병원 민원 업무’, 교통이 혼잡한 남구는 ‘교통 민원 업무’가 공무원의 격무·기피 업무에 선정됐다.

광주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의 격무·기피 업무 부서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약성민원이 많은 부서가 기피 대상이라는 점에서 지자체들이 격무·기피 업무 부서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은 해당 업무를 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1~2년 마다 격무·기피 업무 선정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전통적인 기피·격무 업무는 불법투기·노점상·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매년 빠지지 않고 모든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되고 있다.

이들 업무는 민원 자체가 많고 각종 트집을 잡는 악성 민원인들이 몰려 공무원들의 기피대상 1호다.

전통적인 기피 업무도 있지만, 자치구별로 기피 업무가 다른 특이성도 보이고 있다.

서구의 경우 화정동에 아이파크 건설이 진행되면서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쏟아졌고, 지난해에는 아파트가 붕괴돼 공사장 소음·진동 관련 민원 부서가 기피 1호가 됐다.

해당 팀장은 “공사가 한창인데 지난 2020년~2021년, 이 업무를 맡았던 직원 3명이 연달아 퇴직·이직·휴직을 했다”며 “전화로 육과 반말을 하거나, 매일 전화를 수십통씩 해 다른 업무를 볼 수 없

서구 아이파크 공사 민원 등 여과

2년 사이 3명 휴직·이직·퇴직

동구 병원 민원·광주시 5·18 관련

남구 교통·북구 노점상 단속 업무

각종 인센티브에도 기피 여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공사장 주변에 생계가 걸린 상인들이 많다 보니 민원의 강도도 더 됐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도,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았을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어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한다.

팀장은 “업체 측과 협의해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하지만, 곡괭이를 들고 협박하는 민원인도 있어 생명에 위협을 느낄때도 있다”며 “지난해 서구 전체 공사장 소음 민원으로 출동한 건만 800건이 넘는 업무를 보기가 어려운 수준이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관내에 2곳의 대형 대학병원이 있는 탓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건강정책과 의약관리계 업무를 격무·기피업무로 선정했다.

하루 내원환자가 전남대병원 5000여명 조선대병원 2000여명이 넘다보니, 매년 민원이 1000여건을 넘고 업무량이 많아 인사철마다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필사적으로 기피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광주시에서 병원의 허가·지도·감

독 권한이 동구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폭증했다고 한다.

해당 팀장은 “전체 민원 중 80% 이상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민원으로,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구청을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고 고함을 질러 담당 직원의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이다”고 호소했다.

교통이 혼잡한 남구는 교통과 기피 업무로 꼽혔고, 전통시장의 노점상이 많은 북구는 건설과의 노점상 단속 업무가 선정됐다.

광주시에서도 5·18선양과의 5·18민중화운동선양 및 보상 민원이 격무·기피 업무로 선정됐다. 최근 5·18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오는 7월 1일 8차 5·18 보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치구들은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과 실적가점을 주거나, 전보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직원들이 필사적으로 격무·기피 업무를 피하려고 하고, 휴직까지 내고 있다는 것이다.

북구의 경우 격무·기피 업무 담당 팀장과 담당자 등 2명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팀장을 제외한 담당 직원이 여러 명일 경우 1명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서구도 일정한 실적가점을 담당 직원 수별로 나눠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자치구의 한 인사팀장은 “해당 업무를 맡으면 건강과 가정의 평화가 파괴되기 때문에 최대한 2년 안에 다른 곳으로 전보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인사 시스템 가점을 너무 많이 줄 수도 없어 악성민원 자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봉축탑 점등식 광주불교연합회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을 한달여 앞둔 지난 28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중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있다. 봉축탑은 화엄사 사사자 3층석탑을 한지로 재현한 작품이다. /김진수 기자 jeans@

병원비 먼저 안 내도 재난적 의료비 신청 가능

광주지법 “건보공단 처분 위법...저소득층 의료 접근성 보장해야”

법규의 문구를 잘못 해석해 저소득층에게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재난적 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A씨의 어머니는 2019년 4월께 전남대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3월 숨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분쟁이 발생해 전남대병원은 A씨 어머니를 상대로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어머니가 사망하자 A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A씨는 전남대병원과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니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난적 의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신청 기한을 유예해 달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재난적 의료비의 법규상 ‘지출’의 의미를 실제 납부한 금액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A씨 측이 실제 납부한 의료비가 없다는 점을 들어 거부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규상 지출의 의미는 ▲의료기관에 실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의료기관에 납부할 의료비가 확정되었으나 미납한 경우 ▲의료기관 등과의 의료비에 관한 소송진행 등 해당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의 입법 취지는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약자에게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지출의 의미를 실제 납부로 좁게 해석하면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환자들은 의료비를 납부하지 못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승용차 바다 추락

고흥서 부부 사망

고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6시 10분께 고흥군 도덕면 르프랜 방조제에서 SUV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운전자 A씨와 부인인 60대 동승자 B씨가 30분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B씨도 구조 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목격자들은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 받은 뒤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30cm 높이의 해상추락 방호벽을 타고 넘어 경사면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보다는 운전 미숙으로 보고있다. 또 확보한 차량내 블랙박스를 조사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거래처 1만8000원 식사 대접받은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법원이 거래처로부터 식사대접을 받고 참석자에 대해 허위진술한 직원들에 대해 감봉처분한 한전 전력공사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임태혁)는 A씨 등 3명이 소속 회사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상사 B씨와 거래처 직원 2명과 함께 2020년 3월 17일부터 18일 새벽까지 회식을 하면서 1인당 약 1만 8300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받았다. 이어진 자리에서는 B씨가 회사 법안카드 2인당 2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회식은 며칠 후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역학조사 중에 밝혀졌고 한전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과정에서 A씨 등은 상사 B씨는 회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에 한전이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위배된다며 2명에게 감봉 1개월, 1명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음식과 음료 가격이 사회상 규범위내의 소액인 점 등을 들어 징계는 가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전 취업규칙에 따르면 액수나 경위를 불문하고 거래처로부터 사래·증여·환영을 받거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장, 회식을 자제하고 대체근무를 시행함으로써도 불구하고 상사의 동석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점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22타경 1579	1	순천시 삼산로81, 101동 3층 305호 [양동동, 용당동아이파크] 74.37㎡	아파트	125,000,000 125,000,000	
2022타경 1869	1	광양시 진동5길1, 101동 3층 303호 [마동, 광양마동자연애] 84.9814㎡	아파트	307,000,000 307,000,000	
	2	광양시 진동5길1, 101동 5층 501호 [마동, 광양마동자연애] 75.4896㎡	아파트	229,000,000 229,000,000	
2022타경 52416	1	광양시 진동5길1, 102동 9층 901호 [마동, 광양마동자연애] 84.9990㎡	아파트	305,000,000 305,000,000	
	4	광양시 진동5길1, 102동 14층 1401호 [마동, 광양마동자연애] 84.9990㎡	아파트	305,000,000 305,000,000	
	5	광양시 진동5길1, 102동 19층 1901호 [마동, 광양마동자연애] 84.9990㎡	아파트	305,000,000 305,000,000	
2022타경 52416	1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372-5, 102동 13층 1302호 [신원아르시즈] 84.9892㎡	아파트	269,000,000 269,000,000	
[대지/임야/전답]					
2022타경 1890	1	구례군 산동면 원달리 515 704㎡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발급가능여부소관기관에미리확인요]	전	14,220,800 14,220,800	지적대상행치
	2	구례군 산동면 원달리 519 648㎡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발급가능여부소관기관에미리확인요]	전	14,450,400 14,450,400	지적대상행치. 제시외수목 [산수유] 매각제외
2022타경 52539	1	구례군 산동면 원달리 533-3 847㎡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발급가능여부소관기관에미리확인요]	답	16,516,500 16,516,500	제시외수목 [산수유, 매실나무, 아로니아등]매각제외
	1	여수시 돌산면 원산리 신110-7 2217㎡ [공유자이전자본7/35, 공유자이전액지분7/35, 공유자이전비지분7/35, 공유자이전상향지분3/35, 공유자이전지분2/35, 공유자이전지분2/35라지분전부]	임야	41,856,960 41,856,960	지분매각
2022타경 52843	1	여수시 묘도동 신131-2 5410㎡ [공유자추진소장지분499/5410]	임야	60,379,000 60,379,000	지분매각, 공유자추진소장1회제한
2022타경 53396	1	광양시 진상면 광미리 94-9 56㎡	답	4,480,000 4,480,000	

매각물건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자동차, 중기]					
2022타경 3414	1	사용본거지:여수시 돌산동 광남8길 6 동북동, 용당동아이파크] 2016 [제3차이영규에게보관]	자동차	13,000,000 13,000,000	본관:순천시해룡면복성길301사주동차매대상
2022타경 57428	1	사용본거지:순천시 장영로39-2, 지하층 [장천동] 등록번호:57루8448 차형:쏘울 연식:2014 [제3차이영규에게보관061-743-2227]	자동차	5,500,000 5,500,000	본관:순천시해룡면복성길469-101사주동차매대상
2022타경 58131	1	사용본거지:순천시수박로221, 105동505호 [생목동, 현대아파트] 등록번호:01나8164 차형:트럭S 1.6디젤 연식:2017 [보관자:이수주차매대상사이영규, 061]743-2227]	자동차	10,000,000 10,000,000	본관:순천시해룡면복성길301사주동차매대상
2023타경 50127	1	사용본거지:순천시 득실5길 25, 101동404호 [조곡동, 금강메트로빌] 등록번호:377우776 2 차형:BMM GT 20년 연식:2013 [보관자:이수주차매대상사이영규, 061]743-2227]	자동차	12,000,000 12,000,000	본관:순천시해룡면복성길301사주동차매대상
[기타]					
2021타경 5598	1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108-1 608㎡ 대 2,3층각140㎡ 4-31 1호 1층65㎡ 동소 2호 1층 16.8㎡, 2,3층각140㎡	대 근린시설	1,057,176,000 1,057,176,000	일괄매각
2022타경 1814	1	에창의위치:여수시 돌산동 공평리 지선:75,000㎡ 면적번호:제11855호 양식업종류:패류양식업 양식방법:수하식 양식물종류:굴 양식설비기:1월1일~12월31일 총곡기:10년 [2021년6월21일~2031년6월20일] 면허번호:2021년6월9일 [공유자추진주목10/75지분전부]	어장	50,000,000 50,000,000	지분매각, 별지도면표시매각, 나, 다, 라, 가를 총칭하며, 제3차이영규에게해당서류인수
			선박	324,239,800 324,239,800	본관:여수시돌산읍대동항 [제3차이영규에게해당서류인수]
2022타경 3933	1	선적항:고흥군 도덕면 선박종류와명칭:동력선 나선호 어선번호:1406002-6461302 선적:에프.알.피 총톤수:17톤 기관종류와수:선박용디젤기관 500,000마력1대 추진기종류와수:나선일체식추진기1기 진수년월일:2014년6월11일	선박	53,354,000 53,354,000	본관:여수시국동항 [제3차이영규에게해당서류인수]
2022타경 4233			1	선적항:고흥군 도덕면 선박종류와명칭:동력선 하준호 어선번호:1708005-6467705 선적:에프.알.피 총톤수:9.16톤 기관종류와수:선박용디젤기관 600,000마력1대 추진기종류와수:나선일체식추진기1기 진수년월일:2017.8.4	선박

● 고공권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 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구자의 우선매수권 [민사합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청과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구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각기일: 2023. 5. 15. [월] 10:00
2. 매각결정기일: 2023. 5. 22. [월] 16:00
3.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시지법 제108회경매대법정
4. 매각방법
① 입찰방식에 비한 기일입찰방식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매각가격의 10% [최소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업체를 제정한 문서 [일정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서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최순위에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된다.
5.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확정 매각허가결정이 확정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허가 취소된다. 다만, 매각허가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확정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 유예되고, 임시로 매각허가 취소되지 아니한다.
6.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지상권이나 가압류 등 부담을 부담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 지상권 철회와, 국민주택재권변환요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등기를 특별히 처리한다.
③ 매각대금을 납부한지 5일이 경과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다.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매각대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7. 주의사항
① 매각의 주된 목적은 상가건물에 최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낙찰로 면치 주된 주택전입신고로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자득상환을 위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일반인들의 출찰을 제정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 일까지, 현황조사보고서 및 경쟁참가자의 사본 등을 우편방문 민사 집행신청서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매각기일 전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방문하여 사본을 수령할 수 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당시와 동일하며,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공고 하고 있으므로 우편방문 게시판에 입찰방식에 비한 기일입찰방식에 비한 매각결정일과 매각허가결정일과 매각대금 납부일까지는 동일하며,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매각대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매각대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다.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매각대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매각대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다.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매각대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매각허가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u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 [특별매각]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열람 가능하도록 열람하지 않거나 있지 않은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물품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허가 공고나 비치된 매각결정당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3.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서두현